



ESG 결과 속: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

‘적응’ 투자 기반 강화

Analyst 박세연 shannon@hanwha.com 02-3772-7406 / RA 김예인 yein.kim@hanwha.com 02-3772-8420

결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적응’ 부문 개정

- 환경부는 지난해 말(12/2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K-택소노미’)를 개정함. 감축, 전환 이외 적응 부문을 중점적으로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에 대한 10개 경제활동을 신설,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함
 - ✓ 물: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신설 /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 추가 제시
 - ✓ 순환경제: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 아우르는 6개 경제활동 신설
 - ✓ 오염: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신설 / 선박, 비산(飛散) 배출 등 사각지대 오염관리 반영
 - ✓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신설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반영 /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 위기종에서 야생생물까지 확대
-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수립된 지침으로, 금융기관이 국내·외 프로젝트, 사업, 기업 등의 녹색 분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 목표는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기후변화 이외 4대 환경목표의 국제적 적합성, 사용성과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개발됨

국내 녹색채권 현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은 8조 2,560억원 (K-GBG 기준은 5조 1,662억원 규모)으로, 2023년 발행액 7조 4050억원에 비해 11.5% 증가함. 연간 녹색채권 발행액은 녹색분류체계가 처음 수립된 2021년에 12조 4,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직후 해인 2022년에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음
 - ✓ 상장잔액 기준 2024년말 녹색채권 규모는 27조 3,3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 마찬가지로 2021년에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채권 유형별로는 회사채 비중이 81%로 높으며, 발행사 업종별로는 일반 기업 비중이 45%로 가장 높고 공기업(28%)과 금융기관(27%)은 유사한 수준임

속 : NDC 달성위한 감축, 전환 이외 ‘적응’ 부문으로의 기금 집행 체계 마련 및 운용상품 기준/공시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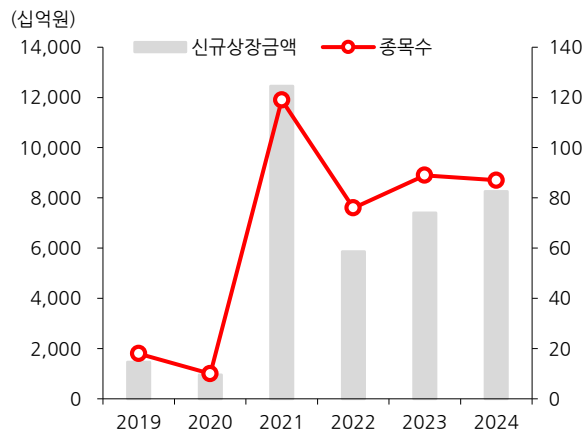
- COP28 이후 ‘기후 적응/회복’으로의 관심과 자금이 증가하였고, 작년 3분기 동안(1Q~3Q) 글로벌 기후 기술 거래의 약 28%가 기후 적응/회복(A&R) 솔루션에 투자(Fitch). ‘적응/전환’ 분야 기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용상품의 기준과 택소노미 개정판을 연계성을 파악할 필요
- K-택소노미 개정으로 기후 적응 분야로의 공공/금융 적극적 투자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이며, 과기부가 발표(1/9)한 862억원 규모의 기후/환경 정책 R&D은 CCU, AI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감축’ 부문의 K-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

[표1] 녹색경제활동 개정 목록

환경목표	분야	경제활동명	개정/신설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8개)	물 공급	(1) 물 공급	개정
		(2) 물 수요 관리	개정
	하폐수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개정
	토양·지하수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개정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신설
	물 순환	(6) 물 재이용	개정
		(7) 대체 수자원 활용	개정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개정
4. 순환경제로의 전환 (14개)	생산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신설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신설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신설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신설
		(2)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신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개정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신설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개정
		(2) 폐기물 재생이용	개정
		(3) 폐기물 재제조	개정
		(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개정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개정
		(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개정
		(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개정
5. 오염 방지 및 관리 (5개)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개정
		(2) 악취 방지 및 저감	개정
	생활환경 관리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신설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4)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개정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	(5)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신설
6. 생물다양성 보전 (4개)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개정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개정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개정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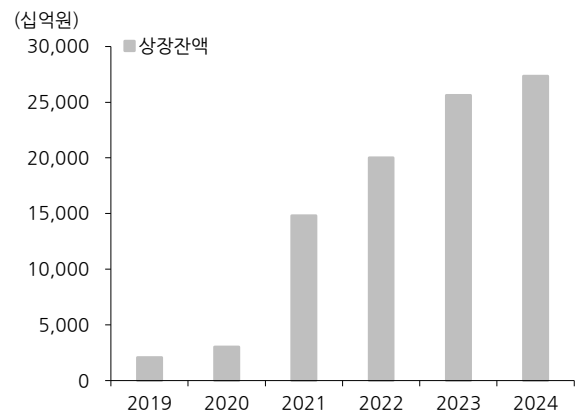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국내 녹색채권 신규상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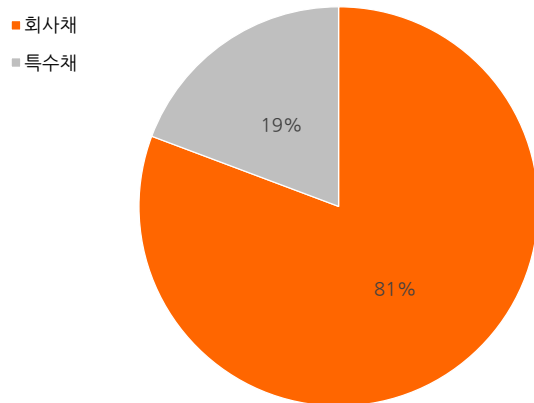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 추이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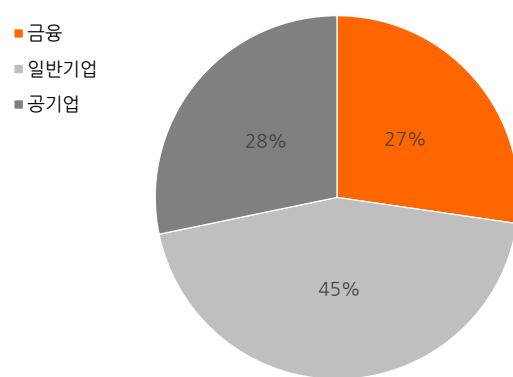
[그림3]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 유형별 비중



주: 2025년 1월 8일 기준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 업종별 비중



주: 2025년 1월 8일 기준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